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앞장

제2기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군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 채택

'2024년 제2기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난 11일 에이본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의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이해와 과제(특강) △군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 △군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 채택 △제3기 먹거리위원회 분과 재편성 확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먹거리 유통 체계 구축, 지속적인 민관 협력 운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더 나은 먹거리 미래를 위한 선언문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군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에는 △지역 농업의 중요성 인식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도모 △형평성에 기초한 먹거리 접근성 보완 등을 포함했다.

즉, 군산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 모두가 먹거리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군산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먹거리위원회는 제3기로서의



'2024년 제2기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난 11일 에이본 호텔에서 개최됐다.

전환을 맞아 기존 4개 분과를 3개 분과로 재편성할 것을 의결하였다. 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분야에 집중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편성된 분과에서는 지역농산물 활용 방안 모색, 음식 안전성 강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제3기 위원회에서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발맞춰 분과별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제3기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안전 먹거리를 보장하고 단순한 먹거리 생산, 소비, 유통을 넘어 복지와 자원 재활용 등 폭넓은 토론회의 장을 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군산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장애·비장애인, 익산 미륵사지 길 걷다

'전북장애인복지관협회 연합 전북 장애인 걷기 대회' 성료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륵사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 함께 걷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익산시는 지난 11일 '2024년 전북장애인복지관협회 연합 전북 장애인 걷기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장애인복지관의 교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백제의 숨결 따라 걷는 희망 길'이라는 주제로 (재)한국장애인복지관 전북특별자치도협회(협회장 이명재)가 주최하고 익산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전윤주)이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자치도 14개소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이용자와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350여명을 비롯 강령석 익산시 부시장과 이명재 한국장애인복지관 전북협회장이 참석했다. 걷기 대회는 미륵사지 정문 광장에서 익산시립예술품물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했다. 개회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걷기 편하게 조성된 길을 따라 미륵사지를 둘러봤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역사 설명이 더해져 관람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현장에는 손글씨(캘리그래피), 부채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이 운영됐다. 또한 사진 장소를 설치하고 음료, 팝콘, 솜사탕 등을 나누며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

이명재 협회장은 "전북장애인복지관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익산에서 개최해 영광"이라며 "장애가 있는 분들이 편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고,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해야 행복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령석 부시장은 "마음 맞춰 발맞춰 걷는 이 길이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어가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8회차를 맞은 걷기 대회는 (재)한국장애인복지관 전북특별자치도협회의 주최로 운영되며, 매년 전북자치도 내 14개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한 곳이 주관해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고창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23년에는 무주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주민 참여형 정원 조성사업 '큰 호응'

2024년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만들기 시상식 개최... '최우수상- 모현동 꽃피는 모현정원' 수상

익산시가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2024년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만들기'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정원 13곳의 기관과 지역공동체에 상징과 부상을 전달했다. 아울러 사업에 적극 참여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한 16명의 유공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어울림 정원은 합월읍·성당면 각각 2개소를 비롯해 △용포면 △용동면 △함라면 △삼기면 △금마면 △왕

궁면 △영등2동 △삼성동 △어양동 △송학동 △모현동 △동산동 △평화동에 1개소씩 총 17곳에 조성됐다.

익산시는 전문가 3명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곳과 우수상 4곳, 장려상 8곳을 선정했다.

심사 내용은 현장평가와 주민참여 실적, 유지관리 인력 구성, 디자인, 심미성 등으로 이뤄졌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모현동 꽃피는 모현정원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영등2동 백제푸르미르정원 △성당면 어르메 어울림정원 △함월읍 다송권역꽃길동산 △동산동 행복정원이 선정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장려상은 △삼기면 축정대파니정원 △어양동 불향기정원 △용동면 연리지정원 △송학동 달빛데마정원 △함라면 마실정원 △용포면 끝나들이정원 △삼성동 삼성솔빛정원 △금마면 무왕 뜰 정원이 차지했다.

정원을 익산시장은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조성에 힘써주신 모든 시민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원 지킴이로 유지 관리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시민참여형 정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전북 최초 액화수소충전소 준공

익산시 목천동 무왕로2길 132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지난 11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의 의장을 비롯

해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는 국비 42억원, 도비 9억원, 시비 9억원, SK 32억원 등 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액화수소충전소를 설치했다.

익산목천 액화수소충전소는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으며, 이는 하루 약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액화수소는 같은 공간에서 기체수소 대비 8배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어, 수소의 운송·충전 효율성 증가가 예상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문화재단 여행프로그램

'낭랑투어' 참여자 모집

(재)군산문화재단(이사장 강입준 군산시장)이 2024 문화로사회연대 사업 중 하나로 오는 10월 26일 세대공감 여행프로그램 '낭랑투어'를 진행한다.

'낭랑투어'는 평소 외출이 많이 없는 노인 세대의 조부모를 모시고 손주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내용으로 평소 교류하기 힘들었던 1·3세대가 함께 연대하며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 진안에서 진행되며 전통 체험(두부 만들기, 나만의 머그잔 만들기 등), 족욕 카페 방문 등 다양하고 알찬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여 모집은 10월 7일부터 21일까지로,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모집인원은 청년 1인 노인 1인을 한 팀으로 10팀(총 20명)으로, 재단 공식 인스타그램과 누리집에 안내된 참여 신청 폼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군산문화재단 누리집(www.gunsan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산문화재단 경영정책팀(063-443-480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제6회 어린이 숲길

걷기 행사 성황리 개최

제6회 어린이 숲길 걷기 행사가 12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월명공원 수변로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숲길 걷기 행사는 어린이들이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마련했다.

걷기 코스는 유아 동반 가족과 몸이 불편한 참가자들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코스로 운영했으며, 청소년수련관 야외주차장에서 출발해 독길을 통해 월명공원 수변로 약 3km 구간을 돌아오는 A코스와 올해 새롭게 조성된 무장애 나눔길을 통하는 약 1km 구간인 B코스로 진행됐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